

전시·체험·공연... 광주 어린이날은 올해도 '하우편'

내달 3~5일 '달콤 축하...' 주제로 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광장서 20여개 국제기관 참여 '교류의 장' "내일을 상상하는 따뜻한 시간 되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의 대표 프로그램 '하우편'이 올해도 풍성한 콘텐츠로 어린이날을 맞이한다.

ACC재단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 11' (하우편 11)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하우편의 주제는 '달콤 축하 상상 대작전!'으로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는 △나의 작은 기념일 △우리들의 즐거운 축하 △세상의 모든 소망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전시, 체험, 공연 등 50여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등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예술가와 연계한 체험형으로 꾸며진다. '나의 작은 기념일'에서는 삶 속 소소한 기념일을 주제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순간을 예술로 표현해 볼 수 있

다. 공현진 작가의 '목신상화: 자투리 축제'에서 자투리 나무로 나무의 인형을 만들 수 있고 노현지 작가의 '그날의 맛'에서는 기념하고 싶은 날의 감정을 색과 맛으로 형상화하는 예술 체험이 펼쳐진다.

'우리들의 즐거운 축하'는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담았다. 나난 작가의 '꽃들의 왈츠'는 작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꽃다발이 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축하의 의미를 전하고, 포리심 작가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다시 굶다'는 일상 속 폐소재를 활용해 대형 케이크 조형물을 완성한다.

이 밖에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협력을 통해 김병종, 이지희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소망과 꿈을 예술로 풀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소망'도 눈길을 끈다. 노인우 작가의 '공간 13-3-3'에서는 각자의 꿈을 상상하고 공간에 그려보며 도파민최 작가의 '도파민의 작업실'에서는 예술가를 꿈꾸는 어린이들의 소망 메시지를 수집하고 선정된 메시지를 작가의 그림과 교환하는 특별한 '예술 소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신혜정 작가의 '뽕굴 뽕굴 뽕로록 소망 연구소'는 온몸을 이용해 자유롭게 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의 대표 프로그램 '하우편 11'이 다음달 3~5일 ACC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하우편 10' 현장.

을 표현하는 감각적인 체험 공간으로, 어린이들의 신체·정서적 소망을 창의적으로 풀어낼 전망이다.

이번 축제는 국내외 문화기관이 함께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어린이박물관, 일본 모리 미술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축하 문화도 함께 나눈다.

아울러 오는 11월25일 개막하는 ACC 개관 10주년 기념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의 사전 행사로, 어린이문화원 로비에 '기억 인벤토리'를 설치해 어린이문화원과 함께한 10년 동안의 기억을 공개 모집한다.

하우편의 즐거움을 더해줄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ACC 창·제작 어린이 공연 '아름을 깨물었을 때'를 비롯해 광주지

역과 함께하는 '꿈의 무용단 광산', '상무대 근무지원단 군악대' 등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문화원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인형극, 서커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의 공연 등을 열어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와 연계한 ACC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다음달 3일에 열린다. ACC 야외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대회는 전국의 유치부, 초등학교 1~3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선착순 400명까지 가능하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ACC 개관 10주년의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가 어린이문화원 일대를 꾸민다"며 "가족들의 소소한 기념일을 떠올리고 함께 축하하는 문화를 나누며 밝은 내일을 상상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우편 11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사전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광주과학관 '지구의 날' 기념행사 다채

환경보호 실천 다양한 이벤트 30일까지 온·오프라인서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22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지구를 위한 푸른색 실천, 초록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오는 30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 행동양식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사이언스 봄 축제'를 비롯해 공연, 특별교육, 전시해설, 체험부스, 지구의 날 연계 캠페인과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 및 현장에서 운영된다. 또한 폐전전지를 10개 이상 지참

하면 우주 특별전 '지구 너머의 세계'에 무료로 입장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잔반 남기지 않기 챌린지 △일회용품 없는 한 주 보내기 △과학관 야간 소등행사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특별한 경험과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배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지구를 위한 푸른색 실천, 초록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국립광주과학관 일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이번 행사의 참여자들이 환경보호 관련 체험을 하는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정명숙 작가의 예술세계를 엿보다... 두 번째 'GB 작가탐방'

내달 1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재)광주비엔날레는 'GB 작가탐방'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정명숙 작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22일 (재)광주비엔날레는 다음달 1일 오후 4시 광주 남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GB 작가탐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GB 작가탐방'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의 일환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시민이 직접 만나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정 작가는 조선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

원에서 미술교육 석사,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설치, 드로잉, 종이 오리기 등을 활용한 혼합매체 작업을 통해 삶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기록해 왔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그라미, 큐브, 자연을 상징하는 오브제는 삶의 단면들을 섬세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서사와 감정을 시각화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구글 설문지(https://lrl.kr/dCSX8) 신청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예정된 'GB 작가탐방'에 대한 일정 및 정보는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확인할면 된다.

박찬 기자



정명숙 작 '그림모내기'.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황승옥 가야금병창이 선보이는 국악예술의 정수

26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판소리고법 보유자 박시양 등

광주의 토요일이 국악예술로 물든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세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무대에는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황승옥 선생이 오른다.

완도에서 태어난 그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국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에는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를 설립해 '대한민국 빛고를 기약대제전'을 통한 후학 양성과 전통음악의 계승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 리플렛.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날 공연은 황승옥 선생의 단가 '녹음방조', 적벽가 중 '화룡도' 대목으로 시작된다.

이어 제자 이경진, 이다은, 반가연, 김하영, 최연재, 주아린, 김빛나라 소리꾼이 함께 '심청가' 중 '화초타령', '황성 올라

가는 대목', '그 자리에 엎드려', '방아타령', '여전사령이 나간다', '천지신령님이', '예소맹이심황후 이 말 듣고', '감은 눈을열씨구나 절씨구' 등의 주요 대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인 박시양 고수가 함께해 무대를 더욱 다채롭게 꾸밀 전망이다.

한편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토·토·전!'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이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 및 공연 관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다회용 타월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